

기억의 판에 새겨진 아이네아스와 디도 이야기: 초서의 『명성의 전당』과 독자*

강지수 (인하대)

작가로서의 자신의 권위나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최소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인 초서(Chaucer)가 거의 모든 저작을 통해 자신을 독자로 제시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¹⁾ 『명성의 전당』(*The House of Fame*)의 화자 제프리는 “독자”로 명백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호기심을 자극한 암브로스의 독서 장면 못지않게 영문학 독자들에게는 인상적인 독서 장면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서의 자전적 묘사로 짐작되는 화자의 퇴근 후 독서 모습이다. 독수리의 말을 들어보자.

그대는 일을 완수하고

* 이 논문은 2005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초서의 전 작품에 나타난 독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개관은 Amtower 273 참조.

계산을 모두 끝내면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 않고
 곧장 집으로 가지.
 그리고는 돌덩어리처럼 묵묵하게
 책 앞에 앉아 있잖아.
 표정이 완전히 멍해질 때까지.
 그대는 이렇게 은자처럼 살지.
 비록 절제는 별로 하지 않지만.

For when thy labour doon al ys,
 And hast mad alle thy rekenynges,
 In stede of reste and newe thynges,
 Thou goost hom to thy hous anoon;
 And, also domb as any stoon,
 thou sittest at another book
 Tyl fully daswed ys thy look,
 And lyvest thus as an heremyte,
 Although thyn abstinence ys lyte. (652-60)²⁾

오랜 세월 거의 집중적으로 작가적 권위에 대한 탐구로 읽고 분석되었던 『명성의 전당』은 사실 여러모로 독자의 중요성이 부각된 작품이다. 몽시(dream-vision)인 이 작품의 형식이 전제하는 것이 꿈이란 꿈꾸는 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려고 하는 제1권의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이야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독서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모두가 글읽기라는 행위에 우리가 주목해야할 이유가 된다. 『명성의 전당』이 제시하는 독서라는 행위의 의미에 주목하는 본 논문이 쟁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독자의 독서 과정과 이 독자가 작가가 되는 과정이며 이것을 중세 정신능력심리학(faculty psychology)과 수사학에서 이해한 기억의 역할을

2) 초서 작품의 모든 인용은 Geoffrey Chaucer,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에 의거하였으며, 한글번역은 필자의 것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초서는 이 시에서 개인의 독서 과정을 극화하고 궁극적으로 작가적 권위는 독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임을 역설한다고 본다. 버질의 『아에네이드』와 같이 권위있는 옛 이야기, 집단 기억 속에서 명성을 누리는 이야기를 개인 독자가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중세의 일반적인 문화적, 문학적 전통에 대한 특별히 전복적인 의의나 극단적인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고대부터 다듬어지고 교육되어진 글 읽는 목적과 방식에 부응하는 과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커리더스(Mary Carruthers)가 『기억의 책』(*The Book of Memory*)에서 명백하게 밝힌 바대로 중세에 글 읽거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기억에 의한, 그리고 기억을 위한 행위였다. 윤리적 판단과 행동, 나아가 자아 형성을 위해 기억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야 했고, 글을 읽었으면 그 내용이 기억이라는 물리적 장치 안에서 제대로 적절한 자리에 정리되어 있어야 했으며, 그래야만 회상할 때 기억의 이곳저곳에 나뉘어 저장되고 축적된 단편들이 수월하게 모아지고(re-member, re-collect)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글쓰기였다. 글을 읽었으면 그것이 기억에 배치되어야 제대로 읽어 소화한 것이고 이것이 기억에서 반추되어 또 다른 글이 형성되는 것이었다. 작가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이런 과정을 거쳐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작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렇게 생산된 텍스트를 매개로 한 집단 기억이 수행하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행위였다. 본 논문에서는 『명성의 전당』 제1권에 나오는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의 기억의 역할이 어떻게 이 작품의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³⁾

기억의 기능과 글 읽기

중세에는 텍스트의 전달은 기본적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의 전달로 이해되

3) 『명성의 전당』과 독자의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Terrell과 Amtower 참조 기억을 주제로 한 최근 연구로는 Evans 참조.

었다. 필경사의 실수나 각종 방언의 영향으로 잘못 씌어질 수 있고, 손쉽게 휴대하거나 널리 보급될 수도 없는 “글”은 일차적인 경로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기억 능력과 더불어 고도로 발달된 교육 과정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키울 수 있는 “인위적 기억”(artificial memory)을 모두 일컫는다.⁴⁾ 기억의 문화로 대변되는 중세에는 글이란 기억해들 만한 말과 행위에 대한 기록으로 텍스트를 기억하게 해주는 많은 보조 수단 중 하나였다. 따라서 필사본의 페이지 구분이나 행의 구성, 사용된 잉크, 글자 크기 등 물리적인 요소들은 다 책이나 문서가 흔치 않았던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능력인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초등 교육 과정에서 기억의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쇄술을 통하여 책의 보급이 원활해진 다음에도 수 세기 동안 상당했던 것을 보면 기억이 단순히 읽은 것이나 들은 것의 내용을 그대로 재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고, 책이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억은 고대와 중세 수사학의 5개 분야 중 하나이며 또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이해되었다(Edwards 5-6; Carruthers 33-45). 중요한 것은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기억의 기능이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소산인 문학은 기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윤리적인 삶과 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있다. 먼저 글읽기 및 글쓰기와 관련하여 『명성의 전당』에서 쟁점이 되는 기억의 두 가지 기능에 일단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중세에는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곧 기억으로의, 그리고 기억에서부터의 텍스트 이동·합성·변환을 의미하였고 읽은 내용은 자신의 것으로, 또는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며, 둘째는 글읽기에 이어지는 진정한 이해는 감각과 감정에 의하여 형성된 특정한 이미지가 두뇌에 각인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글쓰기는 기억에 내장된 이런 이미지를 읽어내는 과정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4) 중세 기억에 관한 연구로는 Bundy, Yates 50-103, Colish 51-52, Kolve 15-26, Carruthers, Coleman, McGerr 131-153 참조. 인위적 기억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Yates 참조.

중세 수사학 문서들을 살펴보면 배열(*dispositio*)에 대한 장에서 텍스트의 끝맺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주는데, 종결(*conclusio*)에 관련된 내용 중 연설의 끝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기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많은 지침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읽거나 들은 것을 저장하고 회상, 재생하는 것은 기억의 기능이다. 일찍이 키케로(Cicero)는 『발상에 대하여』에서 종결은 연설 전체의 끝이요 결론으로서 요약, 적에 대한 분노나 악의(惡意) 자극, 그리고 연민과 동정 유발, 이렇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며 (*De inventione*; 1.52.98-56), 첫 번째 요소인 요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요약은 연설의 여기저기서 다루어진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아 마치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듯이 배열해서 청중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부분이다”(146-147).⁵⁾ 이 내용은 키케로 이후 유서 깊은 전통을 따라 중세 후기까지 각종 수사학 책에서 반복된다.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종결부분에서 요약의 역할은 청중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예외가 없었다(McGerr 14-43). 이야기의 끝은 듣는 자의 회상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사실 위의 인용문은 키케로 자신이 말한 기억 구조의 형성과 매우 유사하다. 연설자의 요약이 “한 자리”, 즉 기억이라는 공간 여러 장소에 내용을 “배열”한다는 것은 그가 『웅변에 대하여』(*De oratore*)에서 설명하는 인위적 기억의 과정과 유사하다.

기억의 능력을 훈련하려는 사람들은 장소들을 선정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의 심상을 형성하여 그 장소들에 저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장소의 순서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의 순서를 보존하게 되고 심상이 실제 그것을 의미하게 되며, 우리는 그 장소와 심상을 각각 밀납판과 거기에 새겨진 글자로 사용하게 된다. (2.86.351-354, Yates 2에서 재인용)

개인 독서와 집단적 환경에서의 글읽기 사이의 인류학적 혹은 언어학적 차이를

5) *Enumeratio est per quam res disperse et diffuse dictae unum in locum coguntur et reminiscend . . . causa unum sub aspectum subiciuntur.* 어거스틴의 저작을 제외한 모든 인용문의 한글번역은 필자의 것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세에 인간의 인식과 학습 과정에 대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구두로 전해지는 텍스트를 들은 청중과 책을 읽은 독자 모두 듣거나 읽은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은 그 텍스트에 대한 기억이었으며 그 인식론적 과정은 거의 동일했다.

단테의 『신곡』 중 「낙원」편 제2곡에는 인간의 인식과정이 마치도 화살이 거꾸로 날아가는 것처럼 특이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

베아트리체는 위를, 나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데 화살이 과거에 꽃히고 날아가 시위를 떠나는 시간만큼도 안 되었을 순간 나는 어떤 경이로운 것이 내 시선을 자기 쪽으로 끄는 것을 보았다.⁶⁾

이 비유가 제공하는 패러다임은 끝에 가야 처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테는 목적론적 움직임, 즉 목적에 의해 유발된 움직임은 끝에서부터 시작해 되돌아보기를 해야만 전체적인 과정과 목적, 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청자나 독자가 서사 구조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회상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위의 비유가 효과적으로 보여주듯 인간이 시간의 과정을 거치는 사건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사건이 끝난 다음이고, 파악, 또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교란시킨 재구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되돌아봄 혹은 회상은 중요한 기억의 역할이었다. 이런 기억의 역할과 문학을 함께 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인물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단어는 하나가 발화되면 그 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각각의 소리는 듣는 이의 기억에 자리잡게 되고 모든 단어는 종국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온전한

6) Beatrice in suso, e io in lei guardava;
e forse in tanto in ququanto unquadrel posa
e vola e da la nove si dischiava,
giunto mi vidi ove mirabil cosa
mi torse il viso a sé;

의미체를 구성한다 (『삼위일체론』 4.10-11, 11.27-28).⁷⁾ 정신의 눈은 끝에서부터 전체를 되돌아보아야 전체로서 기억에 인식된다는 것을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예로 설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의미체가 “원본”이 완전하게 재생된 복사체일 수도 있으나, 개인의 기억에 따라 재구성된 의미체, 즉 그 요체만 살리는 것도 분명하게 기대된 기억의 역할이었다. 오늘날 기억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차적인 기준이 되는 정확성, 혹은 원본의 독자적 근접성 같은 것은 중세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렇다면 특정 텍스트를 기억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기능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시 어거스틴으로 되돌아가보자. 그에 의하면 현재의 인식을 위해 과거의 일을 능동적으로 선택, 검토, 회상하는 것이 모두 기억의 몫이다.

[기억에는] 내가 경험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기억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같은 기억의 창고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거나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믿게 된 것의 영상들을 꺼내어 새로운 영상들을 구성해 보고, 그것들이 과거의 맥락에 맞는가 견주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나는 미래의 행동과 사건과 희망을 추측해 봅니다. 또한 나는 이 모든 것을 현재적인 사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백록』 10.8)

오히려 이 대목에 의하면 기억의 중요성은 현재의 인식을 위해 과거를 재구성하는데 있지 과거를 정확히 복구하는데 있지 않았다. 더구나 이 구절은 기억을 통해 직, 간접으로 경험한 것을 소재로 이야기가 짜여지고, 서사가 형성될 수 있는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중세 기억 담론을 보면 기억의 종류를 단어 하나 하나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memoria verbaliter*)과 전반적 내용이나 요지를 기억하는 것(*memoria sententialiter*)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개인의 판단, 능력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나 웅변술에는 고대부터 후자가 훨씬 더 쓸모있는 기억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Carruthers 80-107).

7) 어거스틴의 기억론은 특히 『고백록』 10권과 『삼위일체론』의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렇듯 기억의 재구성 능력과 결과는 인식 주체에게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아울러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창조의 위력을 가진 것이기도 했고 필연적으로 실제 경험과 시간적, 공간적 격차가 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기억이 선택, 검토, 회상하는 데 필요한 의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바도 흥미롭다.

나는 내 기억이라는 창고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어떤 것은 곧바로 나오고, 어떤 것은 깊은 구석에서 찾아 끄집어 내듯 한참 찾은 후에야 나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무더기로 함께 나와서 우리가 찾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할 때는 “혹시 당신이 찾는 것이 우리가 아니나?” 라고 말하듯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기억의 은밀한 구석에서 나타날 때까지 내 마음의 손으로 그들을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나타나 보였다가 뒤를 따라오는 것에 자리를 내주고는—내가 부를 때 나오려고—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가 기다립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여 말한다면 할 때 나는 이러한 것을 내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백록』 10.8)

어거스틴은 이 의지 때문에 인간은 예전에 인식한 것만 기억하고 기억한 것만 재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의지 때문에 인간이 재현, 또는 재구성한 것이 허구적일 수도 있다. 어거스틴이 거짓 재현의 예로 제시한 검은 백조나 네다리 가진 새는 의지가 이곳저곳에 저장된 기억을 탐색하다가 한 기억의 단편과 또 다른 기억의 단편을 취합한 결과다(『삼위일체론』 11.10). 비록 이런 인위적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정신은 이런 것을 조립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의지는 정신이 체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결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왜곡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 보통은 의지가 내면의 시각에 외부 세상을 정확하게 투영하는 기억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정신은 무력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면의 시각이 해석할 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지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의지는 기억을 감각으로부터 분리시켜 눈앞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다

른 곳으로 끌어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의지는 정신이 인지와 습득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의지가 있을 때만 인식하고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삼위일체론』 11.8). 인간의 모든 인식 능력이 그렇듯이 중세에 기억은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필수불가결한 기능은 훈련되어야 했다.

고대와 중세의 기억에 관한 연구물은 글읽기나 글쓰기에 기억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작가 권위의 문제에 근본적인 시각 조정을 요구한다.⁸⁾ 우선 잘 알려진 세네카의 벌의 비유를 보자. 글을 읽는 자는 “벌을 모방해야 하는데, 벌은 꿀을 만들기에 적절한 꽃 주위를 날아다니며 화밀을 모아 그것을 벌집에 배열, 정리해 넣는다”는 세네카의 말은 또 한편 중세학자들이 글읽기를 소가 여물을 소화하거나 반추하는 것에 비유한 것과 의미를 같이 한다(Carruthers 192). 커러더스의 설명에 의하면 그 과정은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읽은 텍스트를 자신의 텍스트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과정이고 음식과 먹는 사람 양쪽을 다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자가 글읽기의 결과로 수용하는 내용이 저자가 의도한 것이었나 하는 문제는 독자에게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독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사유와 명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텍스트이며 독자는 이 텍스트의 새로운 저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자나 독자가 듣거나 읽은 텍스트는 궁극적으로는 그의 기억의 산물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기억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성은 물론 인간성을 형성할 토대가 없어진다. 초서의 「지방 유지의 이야기」(*The Franklin's Tale*)에서 도리젠(Dorigen)이 해안의 바위를 제거했으니 자기를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아우렐리우스(Aurelius)의 요구를 듣고 그토록 절박한 순간에 정조를 지키지 못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과거의—즉 “옛 책 속의”—그리고 따라서 기억 속의 여성들을 일일이 떠올리며 갈등(을 대신)했던 것은 바로 읽거나 들은 내용이 기억을 통해 내면화되고 곧 자아를

8) 대표적 연구서로서 Carruthers, *The Book of Memory*를 들 수 있는데 이 저술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기억의 재현적 기능은 중세 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형성한다는 중세적 공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중세에는 글읽기와 글쓰기의 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문학은 집단 기억을 형성하고 이것은 개인 기억의 구성을 완성해주는 윤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었다(Carruthers 156-188).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명성의 전당』 제1권에서 아이네아스의 변절을 알고 시름에 빠진 디도가 자살해버리자 화자는 이 상황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하는 자는 “버질의 『아에네이드』나 오비드의 편지를 읽으라”(Rede Virgile in Eneydos / Or the Epistle of Ovyde; 378-79)고 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필리스에서 아리아드네에 이르기까지 변절한 남성에게 고통 받은 여성을 줄줄이 나열하는데(388-420), 이것이 바로 기억에 의해 촉발된 윤리적 독서 현상이다.

기억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된다고 이해했는지 살펴보면 텍스트 수용 과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자는 읽은 내용을 적절하게 나누고 기억의 적정 장소에 배치한다. 후에 글을 쓸 때는 그렇게 나누어진 덩어리, 즉 소재를 한데 ‘모아서’(compose) 텍스트를 만드는 것인데 바로 소화된 이런 기억의 단편들이 반추되는 과정이 저작 활동이다. 버질과 오비드를 읽은 초서가 그의 기억 여기저기 나뉘어 배치된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명성의 전당』 제1권을 쓴 과정이 바로 제1권의 내용이다. 기억이 특정한 내용을 저장, 배열, 회상하는데 있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세에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다(Kolve 9-58). 다시 어거스틴을 인용해본다.

그러자 나는 기억이라고 하는 평야와 넓은 궁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창고와 같아서 감각을 통하여 지각(知覺)된 여러 가지 사물의 영상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는 우리가 감각에 의하여 지각한 것을 어떻게 보태거나 감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생각한 것들과 또한 망각이 아직 삼켜버리거나 물어버리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백록』 10.8)

감각에 의한 인지는 그 근원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중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국 기억 속에 영상이나 환영(phantasm)으로 저장된다. 실질적인 시각적 자

극과는 별개의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상상력(imagination)이라고 했다. 따라서 상상력은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능이었다. 후에 글을 쓰거나 암송하기 위해 읽거나 들은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곧 그 심상을 읽는 것이다.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실재의 이미지이며, 사람이 기억 속에 저장된 심상을 회상하는 과정은, 그 실재는 이미 시간상 과거의 것으로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심상에 의하여 내면에 착안된 언어(*verba concepta*)를 읽는 것과 같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할 때도 이미 지나가 없는 과거의 사건 자체를 기억 속에서 회상해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그 영상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언어”를 회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란 과거의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감각을 통하여 마음에 - 발자취를 남기듯 - 찍어낸 것입니다. (『고백록』 11.18)

이 과정을 먹거(McGer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거스틴의 논의에 함축된 것은 자기 자신의 저작물이 작용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신의 창조와 아름다움을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로부터 마음에 재생시키는 것처럼 또한 글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형상을 독자의 마음에 재생시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아름다움의 형상은 독자만의 기억에 속한 것이 된다. (139)

글은 독자에게 그 나름대로의 영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기억은 이미지나 환영만을 보존하므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말이나 글로 전하는 것은 곧 기억에 저장된 것을 떠올리는 것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명성의 전당』 제1권에서 화자가 비너스의 신전에서 수차례 되풀이하는 “내가 보았노라”(I saugh; 151, 162, 174, 193, 198, 209, 212 등)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화자가 비너스의 신전에서 아이네아스와 디도에 관한 그림을 본다는 설정은 특정한 건축물에 종종 비유되는 기억의 구조물의 적절한 장소에 배치, 저장된 이미지를 본다는 회상 행위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 혹은 이미지가 앞에서 말한 대로 언어적 이미지라는 사실은 화자가 계속 “무엇”이 아닌 어떻게(how)라는 과정을 봤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다(158, 162, 166, 175, 177, 179, 193 등). 초서의 아이네아스와 디도에 관한 이야기는 동판에 새겨진 버질의 『아이네아스』의 유명한 첫문장과 즐거리 요약으로 시작한다(143-148). 그러나 거의 시작과 동시에 글은 사라지고 제프리는 이미지를 보기 시작한다. 동판에 새겨진 글, 지워지지도 않고 수정되지도 않을 절대적 권위를 가진 듯한 이 텍스트는 요약 이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독자”가 보며 번역, 해설, 보완하는 그림, 혹은 이미지로 변모한다. 기억에 보존되는 이미지는 당연히 재현하려는 실재나 경험과 일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명성과 권위의 텍스트 위에 덧쓰기가 가능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초서는 동판 글자에 중첩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학이나 작문 지침서가 텍스트의 종결부분에 나오는 요약의 기능을 정리할 때 끝까지 듣거나 읽혀진 텍스트는 곧 청자나 독자의 기억 속의 텍스트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그 기억이 심상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화자 혼자만의 비너스 신전 그림 관람이라는 내러티브로 구현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된 기억의 작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제프리의 기억에 저장되었다 떠올러지는 심상은 상호텍스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이 읽은 버질과 오비드가 각각 적정 장소에 심상으로 저장되었다가 떠올려질 때면 이것은 기억의 원천적인 상호텍스트 작용을 통하여 재구성, 혹은 개작된 언어적 이미지로 제시되며, 이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프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심상을 보며 자기가 저자인 기억의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다. 상호텍스트 작용이 없으면 기억의 책은 “집필”되거나 완성될 수 없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와 옛이야기들, 즉 “기억의 열쇠”(key of remembrance)가 있어야 표현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제프리가 들려주는 아이네아스와 디도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물론 아이네아스의 배신에 따른 디도의 한탄이다. 버질의 버전이 전달될

때의 형상서술적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이미지가 말이라도 하듯, 디도의 말이 직접 인용되는 중간에 제프리는 이것이 다른 작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313-314), 양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감정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디도의 한탄이 어떤 작가의 텍스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도덕적, 문학적 신뢰성이나 여타 가치가 불분명한 자신과 같은 현재 작가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아이러니가 명백하게 동반된 점손의 토포스(topos)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독자로서 자기의 기억에 각인된 내용임을 구태여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부분에서 서술 장르가 바뀌는 것 또한 오비드의 『헤로이데스』 제7편의 문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버질의 텍스트를 침투한 오비드의 텍스트는 이제 상호텍스트 작용의 현장인 기억을 통해 제프리라는 독자의 이해와 감정을 담은 새로운 기억의 텍스트로 탄생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대가의 이야기는 독자의 기억 속에서 그 어떤 변경과 수정도 허용치 않는 권위의 텍스트가 아닌 그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개의 다른 버전으로 축소되고, 독자의 관점에서는 그 어느 쪽에도 더 많은 진실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 작가의 권위가 또 다른 작가의 권위를 약화, 혹은 취소시키니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전적으로 독자에게 넘어가고 글읽기와 해석의 문제가 이렇듯 의문형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전설은 중세 전통대로 “경건한 아이네아스”(Pius Eneas)의 정신적, 영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적으로 여성 편력에 초점을 맞춘 로맨스도 아닌, 권위있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과 의미 탐색이 전개되는 극적 상황으로 취급된다.⁹⁾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운율을 맞추기 위해 행 끝에 별 의미없이 형식 구처럼 삽입되는 “책에서 말하기를”(426)이라는 구절이, 지나가는 말처럼 잠시 아이네아스를 두둔하는 구절(429)에서는 화자의 기억의 책과 대비를 이루어 사뭇 그 의미의 축소 정도가 실감난다. 버질의 책은 존재한다는 정도의 의미만이 있고 독자인 화자의 기억의 책이 진실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9) 아이네아스 전설을 둘러싼 중세 해석 전통에 대해서는 Baswell 참고.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의 상호보완성

앞서 살펴본 기억의 내재적 특성인 상호텍스트성은 독자의 권위와 그 반응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억의 본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크다. 버질의 권위와 상관없이 오비드가 『헤로이데스』에서 그려내는 디도의 모습에 의존하여 화자는 아이네아스라는 영웅을,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하여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믿고 사랑한 한 여인을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 이용만 하고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추악한 악한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전설은 영웅적 명성의 허상을 고발하고 더 나아가 그 명성을 오랜 세월 떠받친 작가의 권위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는 이런 식의 독법을 무엇을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가? 무엇이 버질의 『아에네이스』를 읽은 이 화자에게 이런 윤리적인 독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이 388행부터 426행까지, 즉 현대 독자들에게는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옛 이야기 속의 인물들의 열거다. 데모폰에게 버림받은 필리스, 아킬레스, 파리스, 이아손, 헤라클레스, 그리고 테세우스에 각각 배신당한 브리세이다, 오이노네, 이시필과 메데아, 데이아네이라, 아리아드네에 이르기까지, 감히 영웅적 이상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을 숨가쁘게 거명한다. 화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텍스트를 찾아 읽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 씌어진 모든 텍스트는 “사랑”(caritas)과 관련된 교훈을 도모한다거나 문학에는 윤리성이 내재되었다는 신념에서 온 독법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불행한 처지에 놓인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감정의 증폭제로 이용해 디도의 딱한 상황에 대해 독자의 감정에 크게 호소하려했다면 이런 내용을 도리젠의 경우처럼 디도의 입에 담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화자의 말로 나온 것은 바로 그가 예전에 읽어서 알게 된 텍스트가 그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었고 기억의 상호텍스트 작용이 독자인 그가 버질의 텍스트에 대한 윤리적인 글읽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독자가 아이네아스를 공명심에 눈먼 이기적인 배신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변덕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다른 기억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거론된 유명한 이야기들은 전통과 권위를 가진 것으로 집단 기억에 저장된 것이고 개인의 기억을 강화, 완성시켜준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증은 거친 집단 기억은 개인 기억을 확인, 보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모든 발언이 독자나 청자의 사유나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멋대로 해석되고 의미가 증폭되어 전달, 유포되면서 결국은 거짓과 진실이 한데 섞여(2034-2109) “명성의 전당”을 향해 창밖으로 날아가는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소문의 전당”이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단순히 여러 사람의 기억을 통해 회자되면서 순식간에 진실로서의 권위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 다음에 설명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이야기해주는
 그건 진실이라 맹세했네.
 “그가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가 그리 하지”,
 “그게 그렇게 전해지는데”,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더니 그랬어”,
 “그건 진실로 입증될 거야”, “나는 내기 할 수 있어”

And than he tolde hym this and that,
 And swor therto that hit was soth—
 “Thus hath he sayd,” and “Thus he doth,”
 “Thus shal hit be,” “Thus herde y seye,”
 “That shal be founde,” “That dar I leye” — (2050-2054)

알아듣기조차 힘든 온갖 잡소리는 더 많은 소리만 낳고, 단순히 양적 팽창이 이야기의 권위를 부여하는 “소문의 전당”의 무질서는 독자의 해석과 평가가 늘 믿을만한 것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확인, 보완 및 완성 기능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우선 바로 위에서 살펴본 “소문의 전당”의 “원리”가 이 주장을 유효하게 한다. 집단 기

억에 저장된다는 것은 개인 기억의 작용과 달리 은유에 불과하지만, 권위란 개인의 기억에서 기억으로 자주, 많이 전해져야 유지되는 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2034-2109행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건 불이 번져 도시 전체를 다 태우듯이 (2078-2080), 확대 재생산된 것만이 창으로 빠져나가 “명성의 전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긴다. 단순한 논리지만 문학의 권위는 작가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부여해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좀더 심각하게, 문학적 권위는 『명성의 전당』의 화자와 같은 독자가 제대로 읽어 재 해석하고 일부 모방이나 패러디도 해가면서 『명성의 전당』과 같은 이런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기억의 판에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이야기와 같은 문학 텍스트를, 그리고 그 이야기의 권위를 떠받치고 있는 버질이나 오비드와 같은 대가들의 권위를 새겨주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흥미로운 조각상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19-1512). 독수리가 데려다 준 “명성의 전당”에서 제프리가 본 것 중 하나가 유명한 작가들의 철재 동상이었다. 요세푸스, 스타티우스, 호머, 다레스, 디티스, 롤리우스, 구이도, 먼머스의 제프리, 버질, 오비드, 루카누스와 클라우디안의 동상들이 각각 그들을 유명하게 한 이야기의 명성을 떠받치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 이야기의 명성을 떠받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스타티우스를 비롯하여 먼머스의 제프리에 이르기까지 트로이 이야기 작가들은 이야기의 명성이 너무 무거워 떠받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묘사한다. 그러면서 이 작가들 사이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관찰까지 뒤따른다. 이런 정황은 “경건한 아이네아스”의 명성을 “오랜 세월”(a long while)(1484) 지탱하고 있는 버질의 임무 또한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대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텍스트의 명성이란 작가들에게만 맡겨지면 부담이 된다는 다소 회극적이기까지 한 설정 - 이 명망 있는 작가들의 굵은 어깨, 일그러진 얼굴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가? - 은 그들의 텍스트의 명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 텍스트의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서 그들 사이의 갈등까지 중재해 줄 수 있는 개별 독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앞에서 부분적

으로 이 작품이 독자의 해석과 평가가 늘 믿을만한 것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명성의 전당』이 노정하는 경고, 비판, 회의의 무게는 물론 집단 기억에 쏠려있다. 제프리가 “명성의 전당”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 즉 얼음판에 새겨진 이름이나 명성의 여신과 그의 부관인 바람의 신이 자격이 있든 없든 임의적으로 명성과 평판을 배분하는 모습은 집단 기억의 임의성, 불안정성, 단절성의 가능성을 폭로하고 있어, 비록 독서 주체의 한계가 지적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단 기억 속의 텍스트는 고민하고 비판하며 텍스트를 사유, 숙고하는 개인 독자에 의해 권위 부여 절차가 완성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권위의 인물”(A man of gret auctorite)?

“명성의 전당”에서 명성이 분배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화자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렬하게 부인하면서 화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나는 만족하지요 내가 죽어
 그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내 위치를 가장 잘 압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내가 다 마실 것이니
 분명, 더 많은 부분에 대해,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그걸 겁니다.

Sufficeth me, as I were ded,
 That no wight have my name in honde.
 I wot myself best how I stonde;
 For what I drye, or what I thynke,
 I wil myselven al hyt drynke,
 Certeyn, for the more part,

As fer forth as I kan my art. (1876-1882)

어떠한 권위를 부여받은 작가이건 그의 글은 읽히는 순간 독자의 기억의 텍스트가 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시에서 제프리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는 자의 쑥스러움이나 겸양 지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새삼스런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결연한 의지의 피력으로 느껴진다. “명성의 전당”에 들어오는 말은 완벽하게 발언자의 모습을 띠는 독수리의 가르침(1074-1083)이 유효하다면 그 전당 안에 있는 제프리 역시 작가 초서의 분신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작가의 글은 곧 독자의 기억의 텍스트로 덧씌워져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읽힐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작가 초서가 자신과 자신의 글이 맞게 될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토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자신의 이름/명성(name/fame)에 연연하지 않겠다니 말이다.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더』(*Troilus and Criseyde*)의 마지막 부분 중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에게 작별을 고하는 유명한 구절 또한 독자 기억으로의 텍스트의 이행(移行)을 상징한 진술이라고 여겨진다.

가라, 작은 책, 내 작은 비극이여,
 그대의 저자가 죽기 전에 신께서 능력을 주서
 희극을 쓸 수 있기를 기원하노라.
 그러나 작은 책이여, 다른 저작을 시기하지 말지니
 모든 문학에 종속되라.
 그리고 버질, 오비드, 호머, 루카누스와 스타티우스가
 지나가는 자리에 입맞추라.

Go, litel bok, go, litel myn tragedye,
 Ther God thi makere yet, er that he dye,
 So sende myght to make in som comedye!

But litel book, no makyng thow n'envie,
 But subgit be to alle poesy;
 And kis the steppes where as thow seest pace
 Virgile, Ovide, Omer, Lucan, and Stace. (1786-1792)

이 구절에 앞서 화자는 가능한 청중/독자의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작가적” 의도를 재확인한다. 즉 그는 청중에게 자신의 일차적인 관심은 트로일러스의 연애이지 그의 무공이 아니었다고 하고, 이어서 여성 청중의 반감을 의식한 척하며 정숙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쓴 것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다. 물론 그것이 원전을 따르느라 범해진 과오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초서다운 변명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교훈의 범위를 확대시켜 여성들도 변덕스러운 남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자기의 책을 과감히 떠나보낸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책”에게 다른 작품들을 시기하지 말고 모든 시에 종속되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시기하지 말라는 부탁은 “명성의 전당”에 도열해 있는 트로이 설화 작가들의 철제 조각상 묘사를 상기시킨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화자는 이 작가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인즉, “어떤 이는 호머가 자기 시에서 속이고 / 거짓말을 했으며 / 그는 그리스를 편애했기 때문에 / 그의 이야기는 꾸면 낸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Oon seyde that Omer made lyes / Feynyng in hys poetries, / And was to Grekes favorable; / Therfor held he hyt but fable; 1477-1480)는 것이다. 독자의 관점에서는 이 작가들 사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절대적으로 가려낼 방법이 없고 그 판단은 독자 개인의 주체적인 (독서)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명성의 전당』, 그리고 특히 제1권의 주제이다. 그렇다면 “모든 문학에 종속”된다는 것이야말로 기억의 상호텍스트 작용을 가정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제 초서가 기억의 주체로서 쓴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더』라는 이 “작은 책”은 “명성의 전당”에서 자기 명성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서있는 (1471-1474) 버질, 오비드, 호머, 루카누스, 스타티우스와 독자의 기억에서 대등

하게 만날 것임을 공포하고 있는 셈이다.

미완성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명성의 전당』의 그 유명한 마지막 행의 “권위의 인물”의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그는 최종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 말은 공기가 갈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말의 진원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온갖 소리가 한데 어울려 있고 사방엔 구멍이 뚫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매마른 지푸라기 집이며, 임의적으로라도 명성을 부여받으면 기껏해야 얼음판에 이름이 새겨지고 그래도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비너스 신전의 동판도 고정적이지 않아 결국 기억의 판에 새겨진 텍스트에 의해 다시 씌어진다는 『명성의 전당』의 줄거리는 문학의 “권위”와 함께 “종결”이라는 단어도 무색하게 만든다. 작가적 권위 행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종결부여” 의식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적절하게 보류되었다고 보고 싶다. 앞서 살펴본 수사학 책들이 공히 인정 하듯이 작품의 끝은 독자 기억의 시작인 이상 피어설(Derek Pearsall)의 말마따나 “불확정성을 운명으로 하고 있는 『명성의 전당』의 종결 부재(non-ending)는 너무도 완벽하여 이 시는 우연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118).¹⁰⁾ 다분히 수도원 중심적이고 라틴어 중심적이며 학문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초서의 시를 조망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고려하면 중세 관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시의 (미)종결 상태를 문학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주제어: 초서, 『명성의 전당』, 기억, 독자, 글읽기, 글쓰기, 권위, 중세 수사학, 텍스트성

10) 초서 시의 종결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줄고, “The (In)Completeness of the Cook’s Tale” 참조

인용문헌

- 강지수. “The (In)Completeness of the *Cook’s Tale*.” 『중세영문학』 제5권 (1997): 145-170.
-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 김종흡 옮김.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1.
- Amtower, Laurel. “Authorizing the Reader in Chaucer’s *House of Fame*.” *Philological Quarterly* 79 (2000): 273-291.
- Baswell, Christopher. *Virgil in Medieval England: Figuring the Aeneid from the Twelfth Century to Chaucer*.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Bundy, Murray. *The Theory of Imagination in Classical and Medieval Thought*. Urbana: U of Illinois P, 1927.
- Carruthers, Mary. *The Book of Mem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icero, M. Tullius. *De inventione, Topica, De optime genere oratorum*. Ed. and trans. J. M. Hubbell. Cambridge, MA: Harvard UP, 1965.
- Coleman, Janet. *Ancient and Medieval Memories: Studies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Past*.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Colish, Marcia. *The Mirror of Language*. Lincoln: U of Nebraska P, 1983.
- Dante, Alighieri. *The Divine Comedy: Paradiso*. Vol. 1. Italian text and translation. Ed. and trans. Charles S. Singleton. Princeton: Princeton UP, 1975.
- _____. *The Divine Comedy: Paradiso*. Vol. 2. Commentary. Charles S. Singleton. Princeton: Princeton UP, 1975.
- Edwards, Robert. *The Dream of Chaucer: Representation and Reflection in the*

- Early Narratives*. Durham: Duke UP, 1989.
- Evans, Ruth. "Chaucer in Cyberspace: Medieval Technologies of Memory and the *House of Fam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3 (2001): 43-69.
- Kolve, V. A. *Chaucer and the Imagery of Narrative*. Stanford: Stanford UP, 1984.
- McGerr, R. P. *Chaucer's Open Book: Resistance to Closure in Medieval Discourse*.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8.
- Pearsall, Derek. *The Life of Geoffrey Chaucer: A Critical Biography*. Oxford: Blackwell, 1992.
- Terrell, Katherine. "Reallocation of Hermeneutic Authority in Chaucer's *House of Fame*." *Chaucer Review* 31 (1997): 279-90.
- Yates, Frances. *The Art of Memory*. London: Routledge, 1966.

The Story of Aeneas and Dido on the Tablet of Memory: *The House of Fame* and the Reader

Abstract

Ji-Soo Kang

According to various scholarship on the ancient and medieval understanding of memory, its representational function in restructuring the past for present cognition and, for that matter, what one has read for later recollection and composition has important ramif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involved in reading and the closely related activity of writing. In Book 1 of the *House of Fame*, Chaucer effectively demonstrates how in and through the memory of its reader a text is understood to have a life of its own once the author ceases to speak. On what is written on a brass tablet as though it would never be erased or revised—what an author like Virgil supposedly does with his authority—are superimposed the mental images of the reader-narrator that are in his intertextual memory, which in turn question the received significance of the texts that have been awarded fame by the collective memory. The rhetoric treatises's recognition of a text's ending as the point of transition—that is, the transition of authority from the author to the reader—is figured prominently by the *House of Fame* as the poem legitimizes the reader's assessment of what is true or false.

Key Words

Chaucer, *The House of Fame*, memory, reader, authority, medieval rhetoric, writing, textuality